| 불자 세상보기 |

금요 조기퇴근제, '朝三暮四' 정책

〈조삼모사〉



성태용
건국대 철학과 교수

내수 경제 활성화가 목적인
금요일 4시 조기 퇴근 정책
'실효성 있는 정책인가' 의문

소비할 시간 없는 게 아니라
여가에 쓸 돈이 없는 게 문제

대기업이 묶어놓기만 한 자본
이제는 재투자를 통해 풀어야
자본이 선순환돼 경제 살아나

원숭이 키우는 사람이 원숭이에게 말했다. "아침에 도토리를 3개 주고 저녁에 네 개 주겠다." 원숭이들이 모두 성을 내었다. "그럼 아침에 네 개 주고 저녁에 세 개를 주지." 그러자 원숭이들이 모두 기뻐하였다.

위의 일화는 모두 다 아는, 〈장자〉에 나오는 '조삼모사(朝三暮四)'의 이야기이다. 새삼 이 이야기를 자세히 하는 이유는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정부 정책이 꼭 이 모습인 것 같아서이다.

금요일 오후 4시에 조기 퇴근을 시킴으로써 소비를 촉진시키겠다는 정책이 바로 그것이다. 오후 4시에 조기퇴근만 시키면 과연 소비가 촉진될 것인가? 과연 퇴근이 늦어서 소비가 촉진되지 않는 것인가? 돈 쓸 시간이 없어 돈을 안 쓰는 것인가?

그렇다면 정말 행복한 이야기라고 말할 사람들이 너무도 많다. 쓸 돈이 없어 돈을 못 쓰는 데, 일찍 퇴근시키면 그 남는 시간 무엇을 하느냐고 물을 사람도 너무 많다. 그리고 과연 금요일 일찍 퇴근을 시킨다면, 그 조기 퇴근을 위해 평일 근무시간을 늘이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는가? 근로 기본 시간을 확실하게 줄인 것이 아니라면, 정말로 '조삼모사'에 딱 들어맞는 이야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 물론 평일에 일을 더 많이 하고 금요일에 적게 한다는 것이 되는 방식의 '조삼모사'이다. 정부가 이런 정책을 내놓은 분명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효용성에 대한 검토도 이루어졌을 것이다. 그런 정책을 너무 쉽게 비판하는 것 아니냐는 되물음도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앞에서 우리가 물었던 것들에 대한 충실한 답변이 준비되어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이런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그리고 그런 비판에 부딪혀 제대로 실행되지 못한다면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성만 떨어지고 만다. 그런 일이 반복되면 국가권력에 대한 신뢰가 근본적으로 문제되는 상황이 이르게 된다.

우선 답을 해야 한다. 기본 근로 시간을 확실하게 줄이는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면 노동자를,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다. 원숭이 취급을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질문에도 답을 해야 한다. 소비가 촉진되지 않는 이유가 돈은 있는데 쓸 시간이 없기 때문이라는 확실한 조사나 통계가 있는가? 만일 그렇지 않다면 쓸 돈도 없는 국민들이 부추겨 분수에 넘치는 소비를 하도록 조장하는 정책이 될 것이다.

소비를 살리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많은 경제학자들은 기업들이 돈을 쌓아놓고 재투자를 하지 않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라고 말한다. 그 쌓여져 있는 돈을 풀게 하는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기업들이 재투자를 하도록 여러 제도를 만들고 개선하여 노동자들에게 돈이 풀리도록 해야 한다.

또 우리가 맞고 있는 가장 큰 위험은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이다. 아이를 낳기만 하면 국가가 키워준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과감한 정책이 수립되고, 거기에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근본적인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정책이 수립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돈이 풀려야 한다. 그래야만 위기상황도 해결되고 소비도 촉진된다.

임시변통의 졸속한 정책은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뿐이다. 그리고 이번 '금요일 조기퇴근'은 그런 정책의 대표적인 예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 정책이 실효성을 지닐 수 있는 충분한 보완을 하여 성공적인 정책을 만들지 못할 것이라면, 부실한 정책의 시행과정에서 오는 쓸데없는 혼란을 줄이는 절차를 밟는 것이 옳다.

社說

현대차GBC 논란, 공정함이 해법

현대자동차 신사옥(GBC) 건립과 관련해 불교계의 반발이 강해지고 있다. 조계종이 사업 전면 재검토와 공청회까지 촉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봉은사 역사문화환경 보존대책위원회(이하 봉은사 대책위)는 2월 28일 현대차 측 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조계종 환경위원회 소속 전문가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이를 3월 2일 강남구청에 주민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조계종의 영향평가 분석결과에 따르면 환경위원들은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들은 대앙과 세부항목 등이 부실해 전면 수정해야 하고, 전통문화환경 · 일조권 · 도심 생태성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예 층고를 낮추자는 의견도 있었다. 실제, 이영경 동국대 경주캠 자연과학대학장은 "105층 건물은 도시적 맥락에는 부응하지 않는 계획으로 층고를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현재 봉은사 대책위는 "현대차 GBC 사업의 전면 재검토와 공정하고 보편타당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공청회가 열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개발 사업은 시작되면 되돌리기 어렵다. 당장 4대강 사업은 잘못된 개발이 얼마나 산하대지가 망가질 수 있는지 보여준 사례다. 도시에 높이 올라가는 고층 주상복합으로 지반이 틀어진 일산 백석동의 경우도 잘못된 개발이 낳은 피해다.

개발은 할 수 있다. 하지만, 주변에 어떤 영향을 주는 지, 피해 입는 주민이나 기관이 없는지는 다각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는 사안이다. 105층이라는 마천루를 건설하는 데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예상하기 어렵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불교계의 주장을 '생떼'가 아닌 공정함을 기하기 위한 과정임을 정부와 지자체, 기업이 인식하길 바란다.

불교대학, 이제 변화해야 산다

한국불교 신도교육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불교대학이 위기다. 조계종 포교현황을 보면 60명을 넘었던 불교대학 평균 입학자가 40여명 언저리에 불과하다. 조계종 포교원장 스님이 회주로 있는 대표적인 포교교육사찰 불광사의 불교대학도 2005년 기준 250명에 달했던 수강생들이 100여명 수준으로 급감했다고 하니 그 실정을 알만하다.

이런 와중에 포교원이 디지털 강좌 등을 활용한 단기 과정인 신행불교대학을 도입한다고 발표하자 기존 불교대학들이 반발했다. 쉬운 교육과정에 수강생이 분산돼 안 그래도 어려운 학사운영이 차질을 빚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다.

하지만 바꿔 생각해보자. 현재 불교대학의 문제는 수강생들을 끌어 올 수 있는 좀 더 특별한 강좌가 없다는 것이다. 좋은 명강사가 강의를 하면 사람들이 모이게 마련이다. 여기에 인터넷 등을 활용해 접근성을 높인다면 보다 많은 이들이 불교대학 강좌를 들을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 현재 불교대학 대부분이 다른 강좌와 직접적인 비교가 되는 온라인 강좌 도입은 꺼린다고 한다. 명강사를 초빙하거나 양성하기 보다는 신도들에게 입학을 설명하는데 그치고 있다.

이제 불교대학은 수강생의 입장으로 돌아가야 한다. 신행불교대학을 계기로 기존 불교대학도 변화해야 한다. 온라인 융합을 통해 보다 질 높은 강좌도 함께 제공돼야 한다. 이와 함께 명강사를 배출하기 위한 강사 양성을 위한 대책도 필요하다. 이와함께 포교사 외 신규목표를 부여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만이 불교대학이 살아남는 길이다.



空으로 본 세상만사

보시, 머무름 없는 善行

정상교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 HK연구교수

며칠 전 도쿄서 열린 학회에 다녀왔다. 공식 일정을 마친 후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8년간의 유학 생활 중 후반기 3년 동안 머문 일련종(日蓮宗)의 상원사(常円寺, 죠엔지)라는 사찰이었다. 상원사는 서울 강남의 봉은사처럼 도쿄 최대 번화가인 신주쿠 빌딩 숲에 자리하고 있다.

당시 나는 다른 유학생들처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생활을 이어가야만 했다. 외국에서 이방인에게 돈이 없다는 건 그야말로 끝이라는 것을 많이 느꼈기에 '일당'이 괜찮은 통역 아르바이트가 있으면 수업이 있어도 안면몰수하고 일하러 다니기도 했다. 그런데 나의 지도교수님은 2년 뒤에 정년퇴임을 하셔야 했고, 유학생인 나로서는 그 전에 박사논문을 제출해야 했다. 지금처럼 일과 학업을 병행해서는 박사논문을 예정된 기간 내에 쓸 수 없을 것만 같았다.

그러던 어느 날 도쿄 시내 한가운데 자리한 어떤 사찰에서 불교를 공부하러 온 유학생들에게 무료로 방을 제공해 준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됐다. 모든 광열비가 무료라나. 일반 공개 모집을 하지는 않지만 지도교수님께서 보증을 해주면 면접을 본 후 받아준다고 했다. 생활비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방세 부담만 덜어도 아르바이트는 확 줄일 수 있을 터였다. 내 사정을 잘 아신 교수님은 그 사찰을 소개해 주셨고, 면접까지 다 함께 해주신 덕분에 난 그곳에 들어갈 수 있었다.

정말 좋았다. 일본 사람들도 방세가 비싸서 엄두도 못내는 도쿄 최대 번화가속의 조용한 사찰인데다 절 본채와는 따로 떨어진 독립된 현대식 건물. 듣던 대로 광열비가 무료다 보니 생활비 아끼느라 춥고 덥게 살았던 나로서는 그야말로 극락이 따로 없었다. 감사함이 샘물처럼 매일 같이 샘솟았고, 박사논문에만 집중할 수 있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무료였지만 요구사항이 딱 하나 있었다. 아침 7시부터 1시간 동안 그곳에 사는 스님들과 마당 청소를 하는 것이었다. 이 역시도 자유라고 했다. 사실 절 마당에 쓰레기가 날마다 쌓일 일도 없었고, 그냥 매일 얼굴이나 한 번 보자는 의미였으리라. 재미있는 것은 8시가 되면 청소를 마치는 종소리가 울리는데 그럼 무조건 청소가 종료된다는 점이다. 아무리 더 쓸어 담을게 있어도, 심지어 내가 쓸고 있는 중이라고 해도 스님들께서 빗자루를 '빼앗고는' 그만 들어가라고 했다. 그리고 스님들께서 무거운 물건을 들고 가시거나 낙엽이 많아 청소하고 계실 때 머리도 식힐 겸 도와드리려고 하면 스님들은 단호히 못하게 했다. '절대!'

또 하나, 유학생들이 사는 층에 스님들은 '절대' 오지 않으셨다. 혹시나 건물 점검 등의 이유로 방도 아닌 복도에라도 들어와야 할 때는 사찰 건물임에도 학생들의 허락을 사전에 '간곡히' 구하고 들어오셨다.

그렇게 살다보니 알게 됐다. 이분들에게 우리는 '공짜로' 사는 학생이 아니었다. 이미 스님들의 마음에는 '공짜로 준 사찰의 방이니까'라는 마음과 그러한 상(相)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아침에도 '약속된' 시간 이외에는 절대 청소를 못하게 하였고, 우리가 살고 있는 방은 '공짜 방'이 아닌 우리 공간이었기에 존중해주신 것이다. 오히려 '공짜로 산다'는 계산적인 상은 내게 있었다.

상원사는 그렇게 학업을 마칠 수 있게 큰 도움을, 또한 '내가 보시를 했다는 마음조차 내지 않는 무주상보시'를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 가르침을 주신 곳이기에 이번 도쿄 방문길에 찾아뵈었다. 너무나 감사한 인연이었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발행인 : 혜원 편집인 : 혜도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 구 지 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전 북 지 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 주 지 국 : (054)634-3429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지리산 다슬기 眞 골드
지리산과 덕유산 일대의 자연다슬기와 국내산 약재로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신장과 시력보호에 탁월한 효과를 지닌 다슬기를 주 재료로 하여 맑은 지리산 계곡물과 함께 각종 약재를 함께 넣어서 정성껏 달였습니다. 장시간 책을 많이 보시는 분들과 수행에 지친 분들께 원기를 복돋아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선물 입니다.
제품문의 : 02) 879-2007
입금안내 : 농협 1282-17-003433 (주) 한메소프트
입금금액 : 125,000원 (무료배송)

제 11 기 영남전통범음·범패 교육과정 수강생 모집

영남전통 범음 · 범패 교육원에서 2017년도 초급 · 중급 · 고급 과정생을 모집합니다. 영남불교의 전통의식 범음범패, 작법(바라춤, 나비춤) 등에 관심있는 스님 및 불자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교육기간 및 과정
가. 초급과정(2개월) ■ 송주 : 도량석, 종송 ■ 예경 : 칠정례, 오분향례, 각단 예불 ■ 권공 : 삼보통청, 상단 중단 권공, 각단불공, 요령, 목탁
나. 중급과정(4개월) ■ 시련, 삼신이운(괘불이운), 대령, 관욕, 옹호게 (신중작법 39위, 104위), 당일천도, 49재, 지장청, 시왕도청, 전시식, 관음의식, 상용영반, 화엄시식, 구병시식, 봉송편
다. 고급과정(6개월) ■ 바라춤 : 천수바라, 사다라니바라, 화의제바라 ■ 나비춤 : 오공양, 유원승, 요잡작법 ■ 사 물 : 태징, 북, 광쇠, 호적(태평소), 전통의식타법 ■ 특 강 : 종사이운, 종사영반, 점안의식, 시다림(다비), 예수재의식 등
라. 강 주 : 석법운 스님
2. 개강일시 : 2017년 3월 16일 목요일
■ 수업시간 : 초급과정-매주 목요일 오전 11시 ~ 오후 1시 / 중급 · 고급과정-매주 목요일 오후 1시 ~ 오후 5시
3. 입학자격 : 종단과 승 · 속 관계없이 누구나 가능
4. 수 강 료 : 교육비 10만원 (교재비별도)
5. 제출서류 : 입학원서 1부 (본 총무원에서 교부)
6. 접수처 : 경북 칠곡군 약목면 복성 9길 28 (복성리 1095) 대한불교조계종 총본산 총무원 동명사 영남전통 범음 · 범패 교육원
7. 접수기간 : 상시모집
8. 문 의 처 : 010-3544-2605 / TEL 054) 974-2605 / FAX 054)974-2705
영남전통 범음 · 범패 교육원